

경제 활성화 '효과 만점'

익산다리로움 소상공인 매출 영향... 소비 전환 효과 직접적 영향

익산다리로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시는 12일 장현을 시장과 익산다리로움 운영대행사(주) KT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다리로움 지역경제 효과분석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분석 결과 익산다리로움은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57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천217억원을 다리로움을 발행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산출하면 '소상공인 가맹점 전환 효과' 561억원, '역내소비

전환효과' 1천409억원, '이전지출 순 소비 증대효과' 156억원 등 총 2천126억원으로 재정투입 대비 3.6배 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로움이 소상공인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의미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전환효과'는 다리로움 판매액의 13.3%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등에 지출될 금액이 다리로움 출시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출된 비율을 의미한다.

타지역 상권으로 유출되었을 금액이 다리로움으로 인해 지역에서 소비되었음을 의미하는 '역내 소비 전환효과'는 다리로움 판매액의 33.4%나 됐다. 지역에서 다리로움으로 인해 유발된

소비촉진 비용인 '이전지출 순 소비 증대효과'는 재정투입액의 25%(최대 2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익산지역 소비액은 다리로움 최초 도입 시점인 2020년 1천829억원에서 2021년 3천50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정책이 익산시 소비 증가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 내 상권의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설문조사 결과 다리로움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 응답자의 91.1%, 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89.3%, 다리로움 적극 사용 권장에 92.9%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가 축산농가에 ICT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

익산시, 빅데이터 분석... 사료량·노동력 절감효과 기대

익산시가 축산농가에 ICT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2일 시는 올해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ICT사업은 축사 온·습도, 환기 상태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해 가축 생육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개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신속하게 파악해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 대외 개방에 대응할 목적으로 양돈, 양계, 젓소·한우 등 모든 축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FTA 이행 기금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금리2%, 3년거치 7년상환)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20%이다.

신청 조건은 양돈 한우 젓소 양계

등 전 축종 농업경영체로서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농장이거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축종별 사업비는 개소 당 15억 이내로 총 3회에 걸쳐 4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화 시설을 이용하면 생장정보, 개체별 건강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료량과 노동력을 줄여 효과적으로 가축을 돌볼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돼지, 젓소·한우 분야 자동급이기, 내부환경관리기, 악취 측정장치, 로봇 착유기·자동 포유기 등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내 전 축종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아동복지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익산시, 연령 만8세 미만 월10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10만원, 아동 급식 지원 단가 7000원

익산시는 올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우선 아동수당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1~3월

분은 소급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만12세~만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한도 내 1:2(자부담:정부부담비율)로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학 아동에게 부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은 급식단가가 1식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관내 결식아동 952여명의 급식단가를 현실화해 양질의 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은 "힘찬 새 해부터 확대되는 아동 복지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가족지원센터’ 새 명칭 단장 본격적인 운영 돌입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인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익산시 가족센터'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기존 명칭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통합되면서 명칭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해 왔다.

명칭 변경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

으며 더 다양해진 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 상담은 평일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운영한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2억5천만원 확대했다.

경제·심리·정서 등 다양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및 가정폭력 자살, 사망 등 위기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에 맞는 지원을 맞춤형 지원을 돕는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검정고시를 비롯한 대학 학비 지원 및 직업교육, 나라별로 구성된 자조 모임 지원 및 친정부부 초청 국제운송비 지원을 추진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임피면, 아낌없는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

군산시 임피면에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웃사랑 실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임피면에 따르면 최근 지역 신생기업인 (주)성진폴리머(대표 허태형)가 100만원, 임피교회(목사 김진우) 성도 일동 100만원, 생명나무교회(목사 송기찬) 성도 일동 50만원, 임피면 주민 개인(심영섭, 이마나 익명자)이 각각 10~20만원 씩 기탁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임피초등학교 2학년 박서연 어린이가 폐지저금통을 통째로 기부해 나눔활동을 실천했다. 기업체, 교회, 개인 어린이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

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봉열 임피면장은 "각계각층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역 소식통

익산시 등록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

익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536건, 7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일반승용차, 택시, 약국, 화물,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올해는 특히 산업단지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건수 증가에 기인하여 1종과 3종 면허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3,9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축사·비닐하우스 화재예방 점검

군산시는 축사·비닐하우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월 28일까지 축사(소 225개소, 돼지 21개소, 닭 16개소)·비닐하우스(32동 16.6ha)에 대해 실시한다.

시는 화재 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 진입로 협소로 인한 화재진압차질 등 점검이 난방시설(온풍기, 히터 등)사용과 분진 등 화재위험, 구성 자체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시설 내 온풍기 및 보온기 자재, 환기시설, 누전차단기 등을 점검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재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가입(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관내 계사에서 화재가 1건 발생한 것 외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발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